

가면극이 연행되는 전통축제의 유형과 특성

- 제주도 <입춘굿놀이>의 축제성을 중심으로

이보람*

국문초록

본고는 축제의 특성에 근거하여 가면이 사용되거나 가면극이 연행되는 전통축제를 선별하여 유형을 분류하였다. 한국 전통축제의 축제성을 도출하기 위한 시도이다.

가면을 착용하거나 가면극을 연행하는 축제에서 종교성의 기본 자질은 신앙이다. 의례로 형식화될 때 ‘제의형’ 축제가 된다. 유희성의 기본적인 자질은 춤·음악의 수반이다. 연행에 서사적 구성이 갖춰질 때 ‘연극형’ 축제가 된다. 사회통합성은 과시적 소비에서 확인된다. 경쟁성이 표출될 때 ‘경기형’ 축제가 된다. 이 자질들이 복합적으로 구성되는 축제도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연극형 축제와 제의형 축제와 결합 양상에 주목해, 제주도 <입춘굿놀이>를 살폈다. <입춘굿놀이>의 가면극은 세 장면으로 나뉘는데 이 중 첫 장면은 새, 씨앗, 농부의 관계로 설명되는 벽사진경 의식의 연극화이다. 농부는 나례 벽사가면인 붉은 대면을 착용해, 벽사를 담당하는 무격이 된다. 이 역할을 두 번째 장면의 포수로 이어진다. 반면 세 번째 장면은 유희성이 강조된 시앗 싸움이다. 제의성의 연극화 장면이 유희성을 목적으로 한 장면으로 확장될 때 축제의 목적이 통어한다.

주제어: 전통축제, 가면극, 축제의 유형, 입춘굿놀이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국어교육학 전공)

1. 머리말

본고는 가면이 사용되거나 가면극이 연행되는 전통축제의 유형을 분류하고 그에 기반하여 축제에서 연행되는 가면극의 특성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축제(祝祭)는 학계를 비롯하여 그 밖에서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이며, 그만큼 넓은 함의를 가진다. 이는 축제의 개념 정의의 다양성에 따른 결과이기보다는, 특정 속성이 부각되는 현상을 지시할 때 그 강조를 위해 ‘축제’의 개념을 빌려오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폭넓은 용례를 보이는 축제를 연구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는 축제의 속성에 초점을 두고 그를 명확히 하는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더욱이 축제는 전통적으로 존재하던 관념이 아니며, ‘전통축제’라는 개념에는 과거의 특정 현상을 축제의 틀로 설명하고자 하는 발상이 전제되어 있다. 따라서 전통축제의 개념과 범주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축제의 속성을 전통적 자질에 어떻게 대응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상일은 축제의 관념과 발상 자체가 서구적이었고, 한국적 축제에 대한 성찰과 인식은 뒤늦게 나타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리고 전통적인 축제의 관념은 축일(祝日)이나 제일(祭日)에 갖는 제사라고 보았다. 또 이는 우리 민족이 고유하게 지내 온 생활습속인 잔치 관념과도 어우러진다고 하였다.¹⁾ 즉 축일과 제일의 제사, 일생의례, 세시풍속 등을 축제의 개념으로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축제의 기원에 대해서는 그것을 종교 의식에 두는 견해가 보편적이다. 이는 가면의 기원이 제의에 있다고 보는 관점과 닮아 있다고 볼 수 있다. 류정아는 서구에서 'festival'의 어원이 성일(聖日)을 뜻하는 'festivus'라는 라틴어임을 들면서, 축제의 기원이 성스러운 종교 의식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는 축제가 흔히 축(祝)과 제(祭)가 포괄적으로 표현되는 문화 현상을 지칭한다고 보았다. 특히 축제에 관한 서구의 선행 연구를 정리하면서 의례로서의 측면을 강조한 연구와 놀이로서의 측면을

1) 이상일, 『축제의 정신』,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98, 10-11쪽.

강조한 연구의 두 흐름으로 연구사를 대별하였다. 전자로서 바흐친(Bakhtin)과 터너(Turner)의 연구를 살필 수 있다. 바흐친은 카니발에서 보이는 전도적, 비밀상적 성격을 축제의 기본적인 성격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터너는 리오 카니발에 대한 연구에서 사육제, 놀이, 혼돈 그리고 디오니소스적인 것들의 의미를 분석하고 있다. 터너에 따르면 피지배 계층의 사람들은 상상력 속에서 공동체적인 평등과 사회적인 이동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의례행위를 통해서 혼돈적인 잠재성을 표현한다고 본다. 호이징가(Huizinga)는 인간의 유희적 본성이 문화적으로 표현된 것이 축제이며, 이 축제적인 상황에서 벌어지는 놀이는 비밀상적이고 비생산적인 것이지만 일상과 생산을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일이라고 하였다.²⁾ 축제의 본질이 유희적 본능이며, 축제를 물질성과 무관하게 삶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적 장치로 보았다.

한편 축제 기간에 일상적 질서, 금기의 위반이 허용됨으로써 축제는 사회 통합적 특성을 가진다. 사육제 시기에 벌어지던 카니발에서는 가면 을 쓰고 거리의 행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비밀스런 사생활을 공공연히 드러낸다거나, 사람들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고 싸움을 걸고, 물건들을 던지는 등의 과격하고 거침없는 행동이 용인된다. 민중들은 카니발을 통해서 억압된 욕구를 발산하고 다시 규범적인 엄격한 사회 속에서 자신의 삶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 이상의 선행 연구를 종합하여 축제의 주요 특성을 종교성, 유희성, 사회 통합성으로 갈무리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가면이 사용되거나 가면극이 진행되는 전통축제를 일별하고 축제의 특성을 근거로 삼아 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는 귀납적인 방법에 의하게 될 것이다. 먼저 연구 대상이 되는 축제의 종류를 정리하고, 그로부터 해당 전통축제가 축제의 특성을 가지게 되는 요소 또는 자질을 분석하여 유형화하는 접근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앞서 한국의 축제는 제사, 일생의례, 세시풍속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보았다. 이때 사회적 수준의 제의와 개인적 수준의 일생의례는 대개 특

2) 류정아, 『축제의 문화인류학』, 살림, 2003, 9-16쪽.

정한 시기에 주기성을 가지고 거행된다. 그런데 세시풍속은 농경의 월, 절기, 계절 등에 따라 관습적으로 반복되는 생활양식을 의미한다. 주기성에 초점을 두어 본다면 세시풍속의 개념에 사회적 제의와 개인적 의례가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세시풍속 가운데 종교성, 유희성, 사회 통합성을 가지면서 가면이 사용되거나 가면극이 진행되는 양식들을 논의의 대상으로 한정한다. 종교성에 초점을 두어 제의와 주술적 목적을 가지는 세시풍속을 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유희성에 초점을 두면 춤과 노래, 음악이 어우러진 연희와 연극이 대상이 된다. 마지막으로 사회 통합성에 초점을 두어 개인적 단위로 이뤄지는 세시풍속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위에 따른 유형 분류의 틀에 근거하여 축제에서 진행되는 가면극의 특성을 고찰할 수 있다. 가면극이 진행되는 축제 가운데 축제적 특성의 여러 자질을 보이는 대상을 중심으로 하여, 그 특성을 살피고자 한다.

2. 가면극이 진행되는 전통축제의 유형 분류

상기한 축제의 범주에 해당하며, 가면을 사용하는 것들을 보이면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가면을 사용하는 전통 축제³⁾

시기	지역	명칭	비고
봄	경남 통영	처용놀이	일반인(여자)
	황해도 연백	소놀이	일반인(청년)
	함남 원산, 황해도 금천	탈춤(박첨지놀이,	일반인(하류층)

3) 윤동환, 『별신의 양상과 성격』, 『한국무속학』 10, 한국무속학회, 2005; 이균옥, 『동해안 지역 무극 연구』, 박이정, 1998; 전경옥, 『함경도의 민속』, 고려대출판부, 1999; 최상수, 『한국민속놀이의 연구』, 성문각, 1985; 현용준, 『제주도 무속 연구』, 집문당, 1986; 무라야마 지준 저, 박전열 역, 『조선의 향토오락』, 집문당, 1992.

		오광대놀이)	
	황해도 수안, 강원도 강릉	오광대놀이	일반인(농민)
입춘	제주도	입춘굿놀이	일반인(관리, 농민), 전문인(무당, 기녀) 고을 단위
	관북	목우놀이	고을 단위
정월, 정월보름	함북 중성, 함남 북청, 평북 벽동, 황해도 황주, 강원도 고성, 충남 아산	사자놀이	일반인(농민, 남자)
	함북 재기승 마을	주지놀이	일반인
	황해도 수안	소놀이	일반인(농민) 신년 첫 축일(丑日)
	황해도, 경기도	소놀이굿	전문인(무당)
	경남 창녕	쇠머리대기	일반인 마을 단위의 겨루기 놀이
	전북 남원	용마놀이	일반인 마을 단위의 겨루기 놀이
	경남 무안	용호놀이	일반인 마을 단위의 겨루기 놀이
	충북 음성, 강원도 강릉	거북놀이	일반인(어린이) 지신밟기와 유사
	함남 고원, 홍원, 안변, 평북 철산, 황해도 연백, 용강, 전남 광주, 곡성, 경남 함안	탈놀이(박첨지놀이, 광대놀이, 탈춤)	일반인(농민)
	충남 대덕	탈춤	전문인(유랑예인)
	경기도 송파	산대놀이	전문인
	경남	야류와 오광대	전문인
	전북 익산	오광대놀이	일반인(남자) 지신밟기와 유사
	경북 예천	청단놀음	일반인
	평북 선천	박첨지놀이	일반인(벉사람)
	함남 고원	처용놀이	일반인 지신밟기와 유사
	황해 옹진, 해주, 연평도	대동굿<광대탈영감거리>	전문인(무당),

		<영산할멈할아범거리>	일반인(벚사람) 마을 단위
	황해 옹진, 해주, 연평도	배연신굿 <영산할멈할아범거리>	전문인(무당), 일반인(벚사람) 개인구, 풍어기원 선달그믐~정월보름(재수굿), 2·3월 부정기적으로 연행
	경북 안동 하회	별신굿탈놀이	일반인 마을 단위, 10년 주기, 제일은 부정기적임
	경북 안동 병산	별신굿탈놀이	전문인(굿패, 광대패) 마을 단위, 3년 주기, 제일은 부정기적임
	경북 영양 일월면 주곡	별신굿탈놀이	전문인(탈꾼) 마을 단위, 선달그믐~정월보름
	경남 거제도, 통영 일대	별신굿 <할미광대>	전문인(무당) 마을 단위 1~15일 사이 또는 3·4월
	전북 전주 완주, 정읍, 익산	지신밟기 (농악, 오광대놀이)	일반(농민) 등장인물: 전주, 완주-사대부, 사냥꾼 등 정읍-총을 맨 대포수 익산-다섯 가면 쓴 농악대
	전국	마을굿, 지신밟기	일반인
2월	함남 함주	목동계	일반인(하류층) 지신밟기와 유사
	제주도	영등굿<영감놀이>	전문인(무당), 일반인(관리) 마을굿, 2월 초하루, 13~15일 사이
3월	경북 영일만 일대	별신굿<탈굿>,<뱀굿>	전문인(무당) 부정기적(81년 조사)
사월 초파일	경기도 용인	가면극	일반(농민)
	경기도 양주	산대놀이	전문인
	황해도 은율	탈춤	전문인
	황해도 송화, 함남 영흥	사자놀이	일반인

단오	강원도 강릉	단오제 가면극	일반인(관노) 고을 단위
	경북 경산시 자인면	자인팔광대놀이	일반인 고을단위
	황해도 봉산, 강령, 은율	탈춤	전문인
	황해도 웅진, 송화, 함남 문천, 안변	탈춤	일반인(농민)
	경기도 양주, 송파	산대놀이	전문인
	황해도 송화, 평남 순천, 함남 풍산, 함북 명천	사자놀이	일반인(남자)
여름	황해도 봉산	소놀이	일반인(목동)
6월	경북 경주, 영일	별신굿	전문인(무당) 마을굿, 3년 주기(87년 이후 조사)
유두	평북 삭주	박침지놀이	일반인
칠석	강원도 회양	탈춤	일반인(농민)
백중	황해도 은율	탈춤	전문인
가을	경남 통영	처용놀이	일반인(여자)
	황해도, 경기도	소놀이굿	전문인(무당)
	황해도 연백	소놀이	일반인(청년) 무녀와 제담 나눔, 음식 대접 받음
	함북 경성, 강원도 양양	사자놀이	일반인(어린이, 청년)
추석	경기도, 충청도, 황해도	소놀이, 거북놀이	일반인(농민, 청년, 어린이, 부인)
	함북 경성, 명천, 경기도 용인	사자놀이	일반인(남자, 어린이) 지신밟기와 유사
	경남 통영, 사천	소싸움	일반인
	함남 문천, 안변	탈춤	일반인(농민)
9월	경남 창녕, 밀양, 김해	소싸움	일반인(남자, 농민)
10월	경북 영일	별신제	전문인(무당) 마을 단위, 3년 주기(87년 이후 조사)
겨울	황해도 연백	소놀이	일반인(청년) 무녀와 제담 나눔, 음식

			대접 받음
11월	경북 영덕	별신제 (별신굿)	전문인(무당) 마을 단위, 난장별신
동지	충남 아산	사자놀이	일반인(농민)
나례	함경도	나희	전문인

<표 1>에 열거된 전통축제들을 축제의 특성에 따라 유형 분류하고자 할 때, 이는 귀납적인 방법을 따르게 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축제의 개념은 한국 전래의 것이 아니다. 전래의 세시풍속 가운데 축제의 성격을 가지는 현상을 선택하여 묶어보았을 때, 전통 축제의 고유한 측면이 드러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분류에 따를 경우 세시풍속, 무속, 유식동제, 마을 단위의 놀이 등 축제로서 분류하기에 이견이 존재하는 대상에 대해서도 일정한 기준을 두어 설명할 수 있다.

<표 2> 가면을 사용하는 전통 축제의 유형 분류

종교성		유희성		사회 통합성		축제의 유형
신앙	의례	춤·음악	서사	음식·소비	경쟁	
+	-	+	-	+	-	세시풍속
+	+	+	-	+	-	세시풍속+제의
+	-	+	+	+	-	세시풍속+연극
+	-	+	-	+	+	세시풍속+경기
+	+	+	+	+	-	세시풍속+제의+연극
+	+	+	-	+	+	세시풍속+제의+경기
+	-	+	+	+	+	세시풍속+연극+경기
+	+	+	+	+	+	세시풍속+제의+연극+경기

주어진 연행이 모두 가면을 사용하는 축제임을 고려하여 종교성, 유희성, 사회 통합성을 기준으로 삼아 그것들이 담보되는 최소의 자질을 파악할 수 있다. 연행의 동기로서 참여자의 신앙이 존재할 때, 종교성의 최소 요건이 확보된다. 이에 더해 형식을 갖춘 종교로서 의례를 갖추고 있

다면 종교성이 발전된 형태의 축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행위의 동기로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민간 신앙, 의례를 갖춘 형식은 유식 동제, 읍치제의와 무식의 마을굿, 고을굿 등이 있을 것이다. 유희성을 확보하는 최소 기준은 연행 과정에서 유발되는 정서적 즐거움이다. 행위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즐거움은 기록된 자료가 많지 않으므로 검토 가능한 자료로서 춤과 음악을 설정할 수 있다. 가면의 착용이 즐거움을 유발하는 연행이 되면서 최소의 조건이 가면을 착용하고 반주에 맞추어 춤을 추는 가면무나 가면희의 형태이다. 이것은 특정한 상황에서 등장인물의 행위가 줄거리를 갖추고 진행될 때 가면극의 형태가 된다. 마지막으로 사회 통합성은 연행의 결과로서 공동체의 구성원 사이에 유대가 생겨나는 것이 최소의 조건이다. 이 역시 관찰 가능한 자료로서 음식, 재물의 소비를 들 수 있다. 마음껏 먹고 마시고 소비하는 것은 일상에서 허용되지 않는 욕망이다. 특정한 절기를 통해 결핍된 욕망을 충족함으로써 일상의 유지가 가능한 것이다. 또 음식과 재물을 함께 나누는 행위도 중요하다. 모여서 음식을 먹는 자체가 공동체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을에서 공동으로 준비하는 축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함께 나누어 지출한다. 마을을 도는 지신밟기의 놀이패에게 음식과 재물을 나누어 주는 것도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반면 경쟁을 통해 유대가 확인되는 축제도 있다. 마을 간의 경쟁으로 이루어지는 축제는 마을 외부의 경쟁자가 존재하므로 마을 내의 유대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호이징가가 놀이의 종류로서 경쟁적 놀이를 분류한 바와 같이, 인간은 경쟁을 통해서 즐거움을 느낀다. 놀이를 포함하여 축제에서의 경쟁은 현실의 경쟁과 달리 승패의 결과가 실재를 구속하지 않는다. 말하자면 모의적 경쟁을 통해 즐거움을 느끼면서도 결과의 부담은 적다. 더욱이 극렬한 싸움이 사회에서는 용인되지 않지만 축제에서는 가능하다. 경쟁을 통해 즐거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망, 그것을 극단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욕망이 축제를 통해 충족될 수 있는 것이다. 종교성과 유희성, 사회 통합성의 기본 자질인 신앙, 춤과 노래, 음식과 재물의 소비 자질이 모두 충족되면 ‘세시풍속의 기본적인 형태’(이하 기본형)가 된다. 이에 의례 자질이 더해지면 ‘세시풍속+

제의'형(이하 제의형), 서사 자질이 더해지면 '세시풍속+연극'형(이하 연극형), 경쟁 자질이 더해지면 '세시풍속+경기'형(이하 경기형)으로 부를 수 있다. 그리고 <표 2>에서 보듯이 제의, 연극, 경기 등의 형태가 복합적으로 조합되어 나타나는 축제의 유형(이하 복합형)이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의 축제 가운데 소먹이기놀이, 거북놀이 등은 기본형, 벽사진경의 의식이 구체적으로 형상화된 지신밟기, 처용놀이 등은 제의형, 경쟁적 놀이인 쇠머리대기는 경기형, 무속의 굿놀이 중의 가면극이나 마을굿·고을굿 중의 가면극은 복합형에 속한다. 한편 본고의 논의 대상인 가면극에 한정하면, 분류된 유형 가운데 연극형과 복합형(세시풍속+제의+연극, 세시풍속+연극+경기, 세시풍속+제의+연극+경기)의 축제에서 가면극에 연행될 수 있다. 그런데 앞선 <표 1>에 조사된 축제 가운데 '세시풍속+연극'의 형태인 연극형, '세시풍속+연극+경기'의 복합형은 드러나지 않는다. 말하자면 축제에 나타나는 가면극은 의례적 자질이 필수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마을굿이나 고을굿의 가면극이 제차(祭次)를 가지고 있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으며, 상업적인 연희로 발전한 본산대놀이 계통의 가면극에서도 첫 부분의 오방신장과장이나 사자춤과 장 등은 놀이판을 정화하는 의식으로서 본산대놀이 계통 가면극의 제의성을 드러낸다.⁴⁾ 다음에서 제주도 <입춘굿놀이>를 중심으로 하여, 축제

4) 전경옥은 본산대놀이 계통 가면극을 성립시킨 계층이 반인임을 밝혔다. 『조선왕조실록』 영조 12년 2월 22일 기록에서 반인이 궁 밖에 무대를 설치하고 연희를 펼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본산대놀이 계통의 가면극이 의례의 과정을 포함하는 것은 반인이 궁중 나례의 담당자였으므로 가능하다. 전경옥, 『한국의 전통연희』, 학고재, 2004, 323-328쪽 참고.

그런데 이들이 거리에서 연희를 펼친 이유는 성균관의 재정 확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인은 성균관에 소속되어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비였다. 성균관은 학전으로 거둬들이는 수입과 외거노비의 신역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16세기 중엽 직전제가 혁파되면서 성균관은 학전으로 세수를 거둘 수 없게 되었다. 이를 보충하기 위해 어장과 토지를 확보하여 절수받기 시작하였으나 아문, 궁방과의 경쟁에 밀리기 시작해 숙종 8년경에 어물전과 생선전에서 어물을 거두던 권리를 잃고, 경종 조에는 경강상인에게 거두어들이던 절인 생선에 대한 세수권도 없었다. 이로써 영조 초기에는 반인의 도사 윤영권이 유일한 수입원으로 남아 있었다. 아키바다카시의 조사에 의하면 반인들은 산대도감에 소속되어 있던 시기에 궁중으로부터 쌀이나 콩 등

속 가면극이 축제로서의 특성을 나타내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3. 제주도 <입춘굿놀이>의 축제적 특성

1) 동물 가면이 사용되는 축제의 유형

<입춘굿놀이>는 고을굿으로서 제의와 모의농경, 가면극과 굿놀이 등이 어우러진 입춘의 축제이다. 앞 절에서 정리한 <표 1>을 바탕으로 할 때, 정월의 세시풍속 가운데 가면이 사용되는 것은 소, 사자, 거북 등 동물 가면이 사용되는 의례와 놀이, 마을 단위의 겨루기 놀이, 지신밟기 계

을 지급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성균관이 그 유지를 위해 필요한 물품을 사전에서 거둘 수 없게 되자, 그 부담이 반인에게 전가 되었다. 반인들의 부담으로 인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는데, 영조 9년에도 성균관의 식당에서 신공을 담당하던 전복이 유생들의 식사에 필요한 쌀이 부족하여 고민하던 중, 방책은 없고 문책은 두려워 자살했다는 내용이 있다. 또한 반인들은 도사권을 가지는 것에 대하여 삼법사(三法司: 형조, 한성부, 사헌부)에 속전(贖錢)을 납부해야 했는데 이에 대한 부담도 컸다. 이러한 맥락에서 반인들의 산대놀이 공연의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조선후기 상업의 성장과 그에 따른 국가 정책의 변화가 급격히 나타남과 함께 반인에 관련되는 정책도 변화하였다. 대체로 노동의 부담이 감소되고 금전적 납부가 증가해 가는 방향으로의 변화였다. 18세기 무렵 성균관에 신역 대신 납입한 금액은 영조 23년(1747)에 6000냥, 삼법사에 납부하는 도사에 대한 속전은 영조 35년(1749)에 2만 냥 가량이었다. 한편 영조 39년(1753)에는 사도(私廩)에 대한 단속 권한이 인정되는데 이는 현방이 삼법사와 성균관에 납부하는 금액이 상당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사도 감시권의 인정은 사도가 증가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소고기의 판매가 큰 수익을 내는 업종이었고, 양반은 물론 궁방(宮房)과 종친, 군문(軍門) 등이 소의 도살과 판매에 참여한 것이다. 국가 의례에 사용되는 포(脯)를 진배하고 남은 고기를 판매하던 봉상시 공인, 돼지고기의 판매권을 가진 저육전도 소고기를 판매했다. 급난전권 자체가 상업의 성장에 따라 실효를 상실한 바와 같이 현방도 사도의 단속권이 있었으나, 다른 상인과외의 극심한 경쟁 속에 놓였을 것이다. 따라서 현방이 위치한 애오개에서 산대놀이가 성립한 것은 상권의 확보를 위한 반인의 상업적 전략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반인이 운영하던 현방이 1848년 지방으로 상권을 확장한 것이 본산대놀이 계통 가면극의 전파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할 수 있다. 조선 후기 반인과 현방의 상업적 성장에 대해서는 강명관, 『조선 후기 체제의 반인 지배 체제와 반인의 대응』, 『한국문화연구』 15,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08, 79-110쪽; 최은정, 「18세기 현방의 상업활동과 운영」, 『이화사학연구』 23:24합호, 이화사학연구소, 1997, 83-112쪽 참고.

통의 의례와 놀이로 대별됨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입춘굿놀이>가 포함되는 ‘동물 가면을 사용하는 축제’를 선별해 유형을 분류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동물 가면이 사용되는 축제의 유형 분류

	종교성		유희성		사회 통합성		유형
	신앙	의례	춤·음악	서사	음식·소비	경쟁	
소먹이기놀이	+	-	+	-	+	-	기본형
소놀이굿	+	+	+	-	+	-	제의형
입춘굿놀이	+	+	+	+	+	-	복합형 (제의+연극)
쇠머리대기	+	-	+	-	+	+	경기형
사자놀이	+	-	+	-	+	-	기본형
거북놀이	+	-	+	-	+	-	기본형
용호놀이	+	-	+	-	+	+	경기형
용마놀이	+	-	+	-	+	+	경기형

소 가면을 사용하는 정월의 세시풍속으로 황해도, 경기도 지역의 소먹이기놀이와 소놀이굿, 제주도의 입춘굿놀이, 함경도의 목우놀이, 경남 창녕의 쇠머리대기가 있다. 동일하게 소 가면을 사용하는 축제를 <표 2>의 준거에 따라 변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분류에 의하면 소먹이기놀이⁵⁾는 ‘신앙, 춤과 노래, 음식과 재물의 소비’ 자질만을 가지는 ‘세시풍속’ 기본형의 축제이다. 사자놀이와 거북놀이 역시 동일한 자질들로 표현되는 ‘세시풍속’ 기본형의 정월 풍속이다. 이에 ‘의례’의 자질이 더해진 소놀이굿⁶⁾은 ‘세시풍속+의례’형으

5) 무라야마 지준의 조사에 따르면 황해도 수안 지역에서는 그 해 첫 축일(丑日)에 살아 있는 소의 뺨을 붉게 칠하고, 소먹이기놀이도 연행한다.(무라야마 지준 저, 박전열 역, 『조선의 향토오락』, 집문당, 1992, 339쪽.) 이는 소먹이기놀이에 반영된 주술적 신앙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6) 소놀이굿은 경기도와 황해도 지역에서 경사곳의 제석거리 뒤에 연희되는 놀이적 성격이 강한 곳이다. 현재에는 경기도 양주, 황해도 평산의 전승본, 연백과 웅진 의 소

로, ‘경쟁’의 자질이 더해진 쇠머리대기는 ‘세시풍속+경기’형으로 볼 수 있다. 용호놀이와 용마놀이 모두 동물가면을 사용하는 마을 단위의 겨루기 놀이이다. 마을이 두 편으로 나뉘어 풍년을 상징하는 가면을 앞세워 겨루기 놀이를 한다. 그리고 겨루기의 결과로서 한 해 마을의 풍흉을 예측하는 경기이다. 즉 용호놀이와 용마놀이는 쇠머리대기와 유사하게 ‘세시풍속+경기’형으로 볼 수 있다.7) <입춘굿놀이>는 ‘신앙, 춤과 노래, 음식과 재물’의 자질에 ‘의례’와 ‘서사’가 더해진 ‘세시풍속+제의+연극’형의 복합적인 축제이다. <표 3>에 근거하여 볼 때 <입춘굿놀이>는 동물가면이 사용되는 정월의 축제 가운데 축제의 요소를 가장 다양하게 갖추고 있다. 또한 서사를 갖추어 연극의 특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 <초공본풀이>를 통해 본 <입춘굿놀이>의 제의성

우리나라에서 소가 사용된 최고의 기록으로 『삼국지(三國志)』 위지(魏

놀이굿이 전한다.(김현선, 『양주소놀이굿』, 화산문화, 2001, 164-235쪽) 소놀이굿은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없고 경사굿에서 속하여 나타난다. 경사굿은 집안의 안녕과 재복 그리고 자손의 창성을 비는 집안 단위의 굿이므로 소놀이굿을 공동체의 통합에 기여하는 성격이 낮은 굿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두현은 소놀이굿이 제석굿의 뒤에 이어 진행되지만, 이에 의해서 경사굿의 12거리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이두현, 『한국연극사』, 학연사, 1985, 113-116쪽.) 즉 경사굿은 기본이 되는 12거리로 진행됨이 일반적이고, 경우에 따라 소놀이굿이 더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소놀이굿이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굿은 아니지만, 굿의 제의적 절차와는 관련이 없는 놀이임을 말한다. 또 경사굿 12거리에 소놀이굿이 더해져 규모가 커지면서 비용이 증가하는데 이로 인해서 소놀이굿이 ‘돈 써버리는 굿’이라고 불리기도 했다고 한다. 또한 소놀이굿이 실제 진행되는 장면은 보면 소, 송아지와 마부가 등장할 때 제장이 대청에서 마당으로 이동한다. 그리고 무녀와 마부가 주고받는 사실은 해학적인 내용으로 웃음을 유발한다. 이는 소놀이굿이 넓은 판에서 공연되는 공연이라는 것을 방증한다. 규모가 확대된 만큼 제주의 가족뿐 아니라 지역에 큰 볼거리를 제공할 것이며, 이것은 제주 입장에서는 큰 지출이 수반되는 과시적 소비가 된다. 즉 놀이성이 강한 굿이 큰 규모로 진행되었으므로 지역 단위의 축제로서 기능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 7) 용호놀이와 용마놀이에 관한 연구는 배도식, 「무안 용호놀이 연구」, 『한국민속학회』 16, 한국민속학회, 1983; 최상수, 『한국민속놀이의 연구』, 성문각, 1985, 120-124쪽 참고

志) 동이전(東夷傳)에 부여에서 전쟁에 나가기 전이나 하늘에 제사를 지낼 때, 소 발굽을 보고 길흉을 점쳤다는 내용이 전한다. 또 『삼국사기(三國史記)』 권 제4 신라본기(新羅本紀) 제4에 신라 지증마립간 3년 우경을 시작했다는 기록과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옥구현(沃溝縣)조에 고려시대에 목우장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전한다. 소에 관한 축제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으나, 고대 이래로 생업에서 소의 비중이 매우 컸으며 소가 제천 의식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⁸⁾

제주도의 입춘굿놀이에 대한 가장 오래된 자료는 이원조의 『탐라록(耽羅錄)』으로 현종 7년(1841)의 기록이다.

24일 입춘날 호장은 관복을 갖추고 나무로 만든 소가 끄는 쟁기를 잡고 가면 양쪽에 어린 기생이 부채를 들고 흔든다. 이를 ‘소몰이’라 한다. 심방 무리들은 활기차게 북을 치며 앞에서 인도하는데 먼저 객사로부터 차례로 관덕정 마당으로 들어와서 ‘밭을 가는 모양’을 흉내 내었다. 이날은 본 관아에서 음식을 차려 대접하였다. 이것은 탐라왕의 적전하는 풍속을 이어온 것이라고 한다.

- 이원조(李源祚), 『탐라록(耽羅錄)』 ‘입춘일념운(立春日拈韻)’⁹⁾

이를 통해 <입춘굿놀이>가 지방관이 참여하는 의례이며, 목우를 사용하는 모의농경의례이며, 소몰이를 포함한 굿놀이이며, 길놀이를 연행하며, 탐라왕이 친경하는 유풍을 이어온 풍속임을 알 수 있다. 연행은 낭쇄몰이(나무소몰이)-밭갈이-뒤풀이의 순서로 구성되고, 연행의 주체는 관리인 호장, 무격인 심방 그리고 기생이다.

이에 비해 김석익의 ‘해상일사(海上逸史)’는 입춘굿놀이의 전체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8) 이하 <입춘굿놀이>에 대한 개관은 김우주, 「초공본풀이 연구」, 한국교원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4; 한진오, 「제주도 입춘굿의 연행 원리 연구」, 제주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07 참고.

9) 二十四日 立春 戶長具官服 執耒耜以木爲牛 兩兒妓左右執扇 謂之退牛 熱群巫擊鼓前導 先自客舍次入營庭 作耕田樣 其日自本府設饌以饋 是耽羅王籍田遺俗云

춘경: 주사에서 이를 주재하는데, 해마다 입춘 하루 전에 주사에 무격들을 모아, 나무로 소를 만들어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

다음 날 아침에 호장이 계회를 머리에 꽃고 몸에는 단령을 걸쳐 입고 나선다. 목우에 농기구를 갖추고, 무격들에게 채복을 차려 입고 호위토록 하며, 앞에서 인도하고 크게 징과 북을 울리게 하여 관덕정 앞까지 이르게 하였다.

무격들이 흩어져 여염집으로 들어가 모이놓은 곡식의 짚을 뽑아오게 하여 그것이 실한가 부실한가의 여부로 새해 농사의 풍흉을 증험하였다.

그리고 다시 돌아서서 객사문 밖에 자리를 옮겨 호장이 쟁기를 잡고 밭을 간다.

이때에 아주 큰 붉은 가면에 긴 수염을 달아 농부로 꾸민 사람 하나가 등장해 오곡의 씨앗을 뿌린다. 이어서 다른 한 사람이 깃에 채색을 하여 초란이처럼 꾸미고 등장하여 씨앗을 쪼아 먹는 시늉을 한다. 한 사람은 가면을 써서 사냥꾼으로 꾸미고 초란이의 뒤를 쫓아가며 맞추는 시늉을 한다.

또 가면을 쓴 두 사람이 여자처럼 꾸미고 처첩이 서로 투기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한 사람이 가면을 써서 남자로 꾸미고 싸움을 말리는 모양을 우스꽝스럽게 보여주면 모두 이를 드러내고 웃는다. 그 형태가 꼭두각시놀음과 매우 비슷하다.

무격의 무리들이 한 데 모여 도약하며 어지럽게 춤을 추면서 태평성대를 즐긴다. 동헌에 들어가서도 이와 똑같이 행한다.

이것은 모두 탐라왕 시절에 왕이 친경, 적전하는 풍속이 남은 것이라고 한다. (목우는 햇대 같은 나무로 제작하는데 모양은 소의 형태와 같으며 다섯 가지 색으로 채색하였으며, 네 바퀴 수레에 태워 몰고 갔다.)¹⁰⁾

-김석익(金錫翼), 『심제집(心齋集)』, 『해상일사(海上逸史)』.

10) 春耕春耕州司(五長廳)主之, 每於立春前一日, 聚巫覡於州司, 造木牛以祭之, 翌朝戶長頭插桂花, 身着團領出, 木牛具農械, 令巫覡輩具彩服, 護衛前導乃大張鑼鼓, 進至觀德亭前兮. 遺巫覡散入閭家, 抽其所儲穀秸, 以所抽者實否, 驗新年之豐嫌, 又轉至客舍門外, 戶長執耒耜以耕, 於是有一人着假面, 絕大赤面, 長鬚飾以農夫, 播五穀種, 一人飾彩羽如抄亂, 做拾啄之狀, 一人着假面飾以獵夫踵抄亂, 而擬中之又二人着假面飾以女優, 有妻妾相妬之容, 一人着假面飾以男優謔作調停之樣, 而皆露齒如笑, 形甚傀儡人, 巫覡輩聚作一隊跳躍亂舞以娛太平, 入東軒上如之, 蓋耽羅王時親耕籍田之遺風云(木牛之制架木, 構造如牛形, 而繪以五彩, 駕以回輪馬)

이는 1918년의 기록인데 배역과 연행의 진행 과정, 연행에 사용되는 탈과 목우(木牛) 등 소품과 장치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축제의 기간은 입춘 전날부터 입춘까지 이틀이며, 공간은 호장의 집무처인 주사에서 관덕정에 이르는 거리와 관덕정을 포함한 제주목의 관아이다. 연행의 과정은 입춘 전날의 낭쇄(나무소) 제작과 제사, 입춘일의 낭쇄몰이, 입춘점, 호장의 모의농경, 가면극, 심방들의 굿놀이이다. 연행의 주체로는 호장과 무격이 등장한다.¹¹⁾ 1841년 이원조의 기록에 비해 심방의 제사, 입춘점, 가면극의 연행 과정이 추가되었고, 규모가 크게 확장된 축제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가 기록자의 관점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 시간을 두고 실제 연행의 내용이 추가된 것인지 기록으로서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심방의 제의와 풍흥을 예측하는 점, 가면극에 등장하는 벽사의 붉은 대면은 공통적으로 농사에 관한 주술적 기능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제주도 무가 중에 무조신의 내력을 설명하는 <초공본풀이>를 살핌으로써 의미를 분명히 할 수 있다. <초공본풀이>에서는 무조신이 모시는 대상신으로서 검은 암소가 등장하고 그 검은 암소가 어떻게 신격이 되었는지의 내력이 포함된다.

<초공본풀이>의 내용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부분은 자지명왕 아기씨의 탄생, 아기씨와 중과의 결연(結緣), 아기씨가 중을 찾아감, 부부임을 확인하고 삼형제를 출산하는 자지명왕 아기씨 중심의 이야기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부분은 삼형제가 어릴 적부터 비범한 능력을 지님, 삼형제가 장성하여 과거를 보러 감, 삼형제가 과거 급제를 하지만 중의 자식이라 급제가 취소됨, 삼형제의 어머니가 옥에 갇힘, 삼형제가 외조부와 아버지를 찾아가 도움을 청함, 삼형제가 굿을 벌여서 어머니를 구출함, 삼형제가 신직(神職)을 부여 받음, 삼천선비에 대한 복수로 삼형제가 중심이 되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으로 유정승 따님 아기가 심방이 되는 이야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¹²⁾

아기씨와 결연한 주지 대사는 신화적 공간인 황금산 도단땅¹³⁾에서 공

11) 한양명, 「원전과 변환」, 『한국민속학』 37, 한국민속학회, 2003, 313-336쪽.

12) 김우주, 앞의 글, 7-20쪽 참고.

부하던 중으로서, 처녀인 아기씨를 수태하게 하는 존재이므로 신격 존재이다. 결연 과정에서 주지 대사는 아기씨에게 시주를 받다가 일부러 쌀을 땅에 흘려 아기씨가 쌀을 줍는 동안 그녀의 상가마를 세 번 쓰다듬는다. 또 아기씨가 자신의 부인임을 입증하는 시험을 내는데 이때의 과업도 곡식의 낱알을 벗기는 것이다. 즉 주지 대사는 곡식을 다스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아기씨가 부인임을 확인한 후에도 아기씨를 황금산으로 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곡식을 다스리는 신의 능력을 인간인 아기씨에게 이양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아기씨는 암소와 관련된 인물이다. 집에서 쫓겨나 주지 대사를 찾으러 가는 길에 아기씨는 암소에 행장을 싣고 떠나, 암소의 도움으로 험한 길을 갈 수 있다. 그러다가 물을 만나면 암소에서 내려 거북¹⁴⁾, 금부채의 도움을 받는다. 특히 <고대중본>에서는 아기씨가 암소의 등에서 내리자 암소가 어느 순간 사라져 황금산 차나락 밭에서 나락을 먹고 있었다고 전한다. 즉 검은 암소가 곡식을 다스리는 직능과 관계되며 또한 그것은 아기씨에게 전이된 직능이기도 하다는 것이 확인된다. 이를 통해 아기씨는 곡식을 다스리는 직능을 가진 검은 암소를 상징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아기씨를 검은 암소로 보는 상징은 삼형제로 인해 죽었다가 삼형제의 제의를 통해 다시 살아남으로써 강화된다. 삼형제는 아버지를 찾아가 어머니를 살릴 방법으로 무의를 익힌다. 그리고 어머니인 아기씨를 다시 살린 후에 무구를 보관한 당집을 아기씨에게 맡긴다. 여기에서 삼형제는 무격이 되며, 희생제의 후에 부활한 아기씨는 무격의 대상신이 된다. 아기씨와 삼형제의 상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 13) 이수자는 몽고족 신앙 중 천심(天心)에 닿은 무당이 황금의 산에 산다는 믿음이 있는데, <초공본풀이>의 황금산도 이와 동일하다고 보았다. 이수자, 『삼불제석의 신적 성격과 형성 배경 —무조신화 초공본풀이와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역사민속학』 4, 한국역사민속학회, 1994.
- 14) 이두현은 경기도 안성 지역의 거북놀이가 사실 소놀이와 동일한 구성에 가깝지만 거북으로 대체되었다고 보았다.(이두현, 『양주 경사굿 소놀이굿』, 열화당, 1989, 82쪽) <초공본풀이>에서도 소와 거북은 땅과 물의 차이만 있을 뿐, 대등하게 신격을 상징하는 존재로 받아들여졌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4〉 〈초공본풀이〉 아기씨삼형제 서사의 제의성

아기씨	삼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곡식을 관장하는 능력을 위임 받음 · 검은 암소를 상징함 · 희생 제의를 거침 · 무속의 신으로 모셔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격이 됨 · 검은 암소를 대상으로 섬김

〈초공본풀이〉의 아기씨와 삼형제가 보이는 이러한 제의적 상징은 <입춘굿놀이〉의 제의성을 이해하는 주요한 단서가 된다. <입춘굿놀이〉에서 무속 제사의 대상으로 나무소가 사용되고, 곡식으로 풍흉을 점치고, 벽사 가면을 사용하는 가면극이 나타나는 이유와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입춘굿놀이〉 소몰이에서 제사의 대상이 나무소인 것은 그것이 희생제의를 거쳐 부활한 존재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동사일지(東司日知)』 ‘입춘제(立春制)’에 “김해부의 입춘일을 보니, 부사에서는 나무로 만든 소를 만들고 호장은 공복을 갖추어 입은 다음 정을 울리며 동쪽 성문 밖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시내에서 영춘장 내에서 신농씨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을 끝낸 후 나무소를 밀면서 땅을 경작하는 시늉을 한다.”라는 기록이 있다. 김해부의 입춘 풍속에서도 나무소, 길놀이, 풍농의례, 모의농경 등이 나타난다. 또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입춘’조에서 함경도 풍속에 나무소를 만들어 길놀이를 하는 풍속을 설명했는데, 이것이 흙으로 소를 만들어 내보내는 제도를 모방하고 풍년을 기도하는 뜻을 나타낸다고 한 점이 주목된다. 『고려사』 권64 지(志)18 단중 6년에 “토우(土牛)로써 한기를 쫓고자 흙으로 소머리 네 개를 만들었는데 길이는 1척이고 높이는 5촌이다(季冬之月命有司大攤旁磔土牛以送寒氣).” 등의 기록에 나타나는 토우를 말하는 것이다.¹⁵⁾ 이와 같이 전통적으로 목우, 토우를 사용한 축제가 존재했으며 그것이 풍요를 기원하는 제의성이 강한 것이었음이 기록으로 확인된다.

이는 중국의 타춘(打春)으로부터 유래된 것인데, 토우를 밖에 내 놓아

15) 한양명, 앞의 글, 319쪽.

서 추위를 없앤다는 관념에 기반하여 소가 희생제외의 대상이 된다. 『중국민속지(中國民俗誌)』에 농민들이 입춘날 토우를 만들고, 깨뜨려서 수구(水口)의 재앙을 점치고, 술과 한주를 만들어 토신에게 제사지내는 행사가 전국적으로 행해졌다고 한다.¹⁶⁾ 이 때 토우를 깨뜨리는 것은 토우가 희생물로 사용되었으며, 농점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입춘굿놀이>의 입춘점에서 곡식으로써 농사의 흥풍을 점치는 과정도 이전 시기의 기록에서 발견된다. 『영가지(永嘉誌)』 권2 ‘산천’에는 입춘일에 동황(東皇)에게 제사를 지내고, 같은 날 오곡을 그릇에 담아 점을 쳤다는 기록이 있어, 17세기 안동 지역에 곡식으로 풍흉을 점치는 입춘풍속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세기 문헌 『열양세시기(洙陽歲時記)』의 ‘입춘’에도 농가에서 보리뿌리를 캐어 보고 그 해의 풍흉을 점친다고 하였다.¹⁷⁾ 즉 이와 같이 입춘에 곡식을 보고 한 해 농경의 풍흉을 점치는 예측적(豫祝的)·점세적(占歲的) 세시풍속이 지속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입춘굿놀이>의 소몰이와 입춘점에서 소에 대한 희생제외와 곡식을 통한 예측 행사가 복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나무소에 쟁기를 걸어 밭을 가는 모의 농경 장면에는 이 두 요소가 동시에 나타난다. 부활한 소의 곡신적 신격을 전제하고, 모의 농경 행위를 통해 예측적으로 풍년을 기원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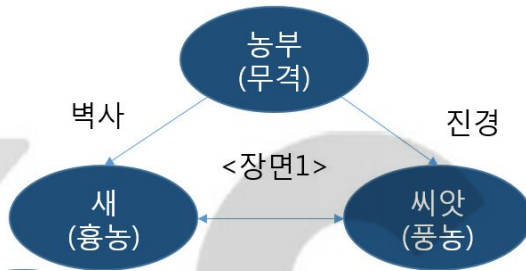
3) <입춘굿놀이> 가면극의 연극적 장면 구성

위의 맥락 내에서 <입춘굿놀이> 가면극에 등장하는 농부는 벽사를 담당하는 무격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초공본풀이>에서 최초의 무격이 된 삼형제는 어머니인 아기씨를 당집에 모신 후에, 아기씨를 가두었던 삼천 선비에게 복수하러 떠난다. 한편 <입춘굿놀이> 가면극에서는 붉은 대면을 착용한 농부가 파종을 할 때 새가 오곡의 씨앗을 앗아간다. <입춘굿놀이>의 가면극에서 새와 씨앗의 관계는 <초공본풀이>의 삼천 선비와

16) 최상수, 앞의 글, 140쪽.

17) 한양명, 앞의 글, 320쪽.

아기씨의 관계에 대응된다. 그리고 농부와 새의 관계가 삼형제와 삼천 선비의 관계가 된다. 붉은 대면은 나례에서 사용되는 벽사가면이다. 따라서 붉은 가면을 착용한 농부는 벽사진경의 역할을 담당하는 무격이 극의 등장인물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입춘굿놀이>의 가면극은 무격에 의해 선신이 보호되고 악신이 쫓겨나는 과정을 극화하여 보이는 것이다.



〈그림 1〉 입춘굿놀이 가면극의 인물 관계도(장면1)

한편 극의 다음 장면에서 새는 총을 쏘는 포수에 의해 쫓긴다. 이것은 포수 두 명이 닭을 쫓는 제주도 굿놀이 <산신놀이>의 장면과 유사하다. <산신놀이>는 수렵과 동물을 관장하는 산신(山神)을 당신으로 삼는 마을의 당굿이나, 조상신으로 삼는 집안의 조상굿으로 연행된다. 산신에게 제사를 지낸 후에 모의 수렵 행위를 가면극으로 보여서 예측적으로 풍요를 기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산신놀이>의 사냥놀이는 포수 두 명이 산신 덕에 사냥에 성공하고 분육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장면이다.¹⁸⁾ 이 장면은 산신 신앙을 가진 다른 지역의 가면극이 결합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를 경우 흥농을 상징하던 새의 성격이 포수의 등장으로

18) 한진오는 입춘굿놀이의 포수가 새를 사냥하는 장면이 제주도의 걸궁에도 발견되며, 다른 지역의 농악대의 잡색놀음에도 흔히 나타나는 포수놀이와 유사하다고 하였다. 한진오, 위의 글, 44쪽.

인하여 풍요 기원의 대상으로 바뀌게 되어 일관적인 해석이 불가능하다. 이 때 참고할 만한 것이 지신밟기와 나례에 등장하는 포수의 역할이다. 앞서 <표 1>에서 <입춘굿놀이>와 같은 봄 축제의 다른 형태로 동물 가면을 사용한 축제, 지신밟기 종류의 축제를 살필 수 있었다. 이때 지신밟기에서 보이는 가면은 신격을 가장한 동물가면 또는 포수와 양반 가면 등으로 무격의 가면이 아니다. 후자는 벽사가면으로 보기 어려운 범인형상의 가면이다. 이에 관해 송기태는 포수의 소도구로서 총과 담배 등에 대해 주목했다.¹⁹⁾ 호남지역의 풍물굿에서 대포수는 일반적으로 총을 들고 다니는데 남원, 완도 생일면과 금일읍의 대포수는 채찍을 들고 보성에서는 담배를 든다. 영광과 해남에서는 총과 채찍을 들고 진도, 완도 정좌리에서는 총과 담뱃대를 든다. 또 남원에서 대포수가 방울을 달고 담양에서 대포수나 창부가 방울을 단다. 즉 대포수는 총 외에 채찍, 방울, 담배를 소도구로 가진다. 채찍과 방울은 나례에서 역귀를 쫓을 때 사용하는 도구이며 이것은 본산대놀이 계통의 가면극에서 취발이와 말뚝이가 노승과 양반들을 사회적 악귀로 인식하여 쫓는 행위로 계승되고 있다. 지신밟기 계통의 축제에 사용되는 채찍과 방울 역시 나례의 구역의식에서와 동일한 기능을 담당하는 소도구인 것이다. 그렇다면 지신밟기 계통의 축제에서 채찍, 방울과 함께 쓰이는 총, 담배 등도 구역의 기능을 하는 소도구로 볼 수 있다.

총에 대해서도 그것이 나례의 구역에 사용된 기록을 발견할 수 있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정월 원일 조에 “대궐 안 궁정 근처에서 각각 총을 놓아 소리를 낸다. 그리고 지방 관아에서 우인들과 괴뢰의 탈을 만들어 쓰고 울리며 막대기를 휘두르며 호령을 하고 무엇을 쫓는 시늉을 하면서 두루 몇 바퀴를 돌다가 나간다. 이것은 나례에서 끼쳐진 법이다.”라는 기록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총이 사용되면서 나례에서 총이 벽사의 기능을 담당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즉 지신밟기 계열의 축제에서 총이 사용되기 이전 채찍, 방울 등을 도

19) 송기태, 「풍물굿 대포수의 양면성」, 『공연문화연구』 15, 한국공연문화학회, 2007, 141-17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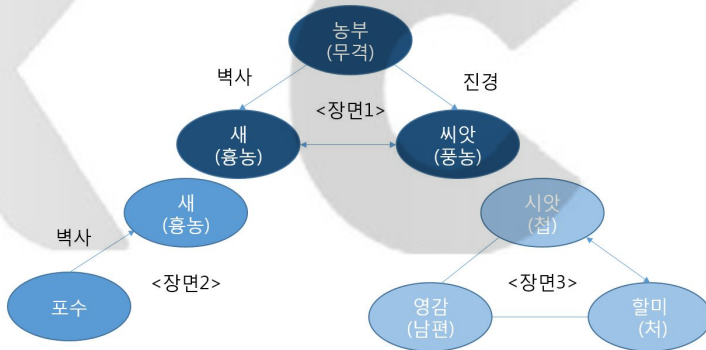
구로 하여 마을에서 구역의식을 행하는 인물이 존재했었고, 나례에서 총이 사용되면서 그에 상응하도록 벽사인물이 포수로 대체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는 소놀이, 사자놀이, 거북놀이 등에서 나타나는 동물가면과 비교할 만하다. 소, 사자와 거북 가면은 벽사진경의 상징을 내포하는 동물을 형상화 한 것으로 제의성이 인정된다. 이에 비해 풍물굿 잡색놀이의 매구에서는 신격과 무관한 인간 가면이 소도구를 통하여 제의성을 내포한 벽사가면으로 역할을 할 수 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벽사진경을 목적으로 하는 봄 절기의 축제로서 <입춘굿놀이>에도 적용하여 생각해볼 수 있다. 즉 <입춘굿놀이> 가면극에서 포수의 등장은 총을 쏘아 사악한 기운을 쫓던 나례의 관습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입춘굿놀이> 가면극의 세 번째 장면인 시앗 싸움은 본산대놀이 계통 가면극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영감·할미과장이 축제의 유희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결합된 것으로 보인다. 영감을 둘러싼 처첩 갈등을 다룬 가면극은 산대도감 출신의 연희자에 의해 성립된 본산대놀이 계통의 가면극에 포함된 과장이다.²⁰⁾ 그에 비해 <입춘굿놀이> 가면극의 장면은 기록에 의할 때 대사가 존재하지 않으며 극적 상황이 구체적으로 형상화 되지 않아, 소략하고 단순화되어 있다. 그러나 본산대놀이 계통 가면극 중 <영감·할미과장>의 영향을 받은 것은 분명해 보인다. 더욱이 두 번째 장면에서 등장인물 포수와 그가 사용하는 소도구 총이 나례와 지신밟기의 영향 하에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918년의 기록에는 <입춘굿놀이>가 이전에 비해 확대된 축제의 형태로 제시되었다. 이는 나례, 지신밟기 등 외부의 축제들이 제주도 <입춘굿놀이>의 연행에 영향을 주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세 번째 장면의 시앗 싸움 역시 본산대놀이 계통의 가면극이 연행되는 축제의 영향으로 삽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나례의 담당층이 본산대놀이 계통 가면극의 연희 담당층과 동일한 계층인 반인 출신임을 고려할 때 그 개연성은 더욱 높다고 볼 수 있다.

20) 전경옥, 『한국의 전통연희』, 학고재, 2004, 379-452쪽 참고

〈표 5〉 〈입춘굿놀이〉 가면극의 연극적 장면 구성

	<장면1> 농부의 파종	<장면2> 포수의 새 사냥	<장면3> 시앗 싸움
서사	<초공본풀이>의 삼형제와 삼천 선비의 갈등	나례와 지신밟기의 벽사의식	<영감· 할미과장>의 처첩 갈등
가면, 소도구	붉은 대면과 긴 수염, 채색한 깃대	사냥꾼 가면, 채색한 깃대	두 여자의 가면과 복식, 남자 가면
등장 인물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림	포수가 새를 맞춤	처첩이 서로 투기함
	새가 씨앗을 쪼아 먹음	새가 포수에게 잡힘	남편이 우스꽝스럽게 싸움을 말림



〈그림 2〉 〈입춘굿놀이〉 가면극의 인물 관계도(장면1~3)

위 <표 5>에서 살핀 바와 같이 <입춘굿놀이>의 가면극은 ‘농부의 파종-포수의 새 사냥-시앗 싸움’ 세 장면으로 나뉜다. 이 때 흥미로운 것은 농부의 파종에 등장하는 새와 씨앗이 두 번째, 세 번째 장면을 결합시키는 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첫 장면에서 농부는 붉은 대면을 착용하고 있으므로 흥농을 상징하는 새를 쫓는 벽사 기능을 담당하는 무격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장면에서 새는 동일하게 등장해 있으면서 포수가 새를

게 등장하는데 이는 앞서 붉은 대면을 착용한 농부와 마찬가지로 흥농에 대한 벽사를 극화한 장면이라고 볼 수 있다. 포수가 사용하는 총은 궁중의 나례와 농악대의 지신밟기에서 벽사 기능을 담당하던 소도구이기 때문이다. 즉 ‘새’로 구체화된 등장인물을 통하여 벽사의식의 제의성이 연극적 장면으로 극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첫 장면에서 선신, 풍요를 상징하던 씨앗은 셋째 장면에서, 기존 가면극의 처첩 갈등 이야기에 등장하는 ‘시앗’으로 대체된다. 첫 장면과 세 번째 장면의 이러한 결합은 ‘씨앗’이라는 단어의 음성적 특성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혹은 그와 무관하게 기존 가면극 가운데 유희성이 강한 가면극이 선택되어 결합했을 수도 있다. 어느 경우에 따르든, <장면1>·<장면2>와 <장면3>은 목적과 서사적 구성, 등장인물의 관계가 모두 무관하다. 따라서 이에는 첫 장면과 둘째 장면의 제의성이 사라지고 유희성만이 강조되는 것이다. 첫 장면에서 가면은 벽사진경의 의례를 담당하는 무격을 나타내며, 두 번째 장면에서는 소도구를 통해 가면 착용 인물의 제의성이 담보된다. 이후 결합된 세 번째 장면의 가면은 인간 사이의 갈등을 표현하는 극의 예능가면으로 사용된 것이다.

4. 맺음말

본고는 축제의 특성에 근거하여 전통축제 가운데 가면이 사용되거나 가면극이 진행되는 축제를 선별하여 유형을 분류하였다.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축제의 특성으로 종교성, 유희성, 사회 통합성을 들 수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축제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으나, 전통축제의 유형을 분류하기에 앞서 축제의 관념과 발상이 서구적인 것임을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다. 축제의 특성이 이와 같이 일반화된 것은 구체적인 축제의 양상이 존재하고 그것이 추상화되는 과정을 거친 것이다. 이에 한국의 전통축제에 대하여서도 그것의 축제적 특성을 귀납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여 정리하고, 그것을 일반화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가면이 사용되거나 가면극이 연행되는 축제에 한정하여 살필 때, 전통 축제에서 종교성의 기본적인 자질은 연행의 동기로서 참여자의 신앙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형식화되어 의례가 포함될 때 제의성을 주요 특성으로 하는 ‘제의형’의 축제가 된다. 다음으로 유희성의 기본적인 자질은 정서적 즐거움을 유발하는 춤과 음악의 연행이다. 그리고 그러한 연행에 서사적인 구성이 수반되어 형식화 될 때 연극성을 주요 특성으로 하는 ‘연극형’의 축제가 된다. 마지막으로 사회통합성은 음식을 나누고 비효율적·과시적으로 소비하는 형태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는 일상적 사회 규율로부터의 일탈이라는 의미를 담는 것이기도 하다. 이에서 나아가 사회적 규율로서는 금기된 파괴의 욕망이 축제에 포함되어 표출될 때 경쟁성을 주요 특성으로 하는 ‘경기형’의 축제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자질들이 복합되어 순차적으로 구성되는 축제의 유형도 다양하게 존재한다.

가면극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는 본고에서 주목한 점은 연극형의 축제가 제의형의 축제와 결합되어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와 같이 제의성과 연극성의 결합이 두드러지는 축제로서 제주도의 <입춘굿놀이>를 살필 수 있다. 축제로서 <입춘굿놀이>는 가면극 외에 목우의 제작과 제사, 소몰이, 입춘점, 모의농경 등의 제의 과정을 포함한다. 또한 가면극을 연행한 이후에는 뒷놀이로서 심방들의 굿놀이가 포함되는 고을 단위의 대규모의 축제이다. 의례적 절차로서 소몰이, 입춘점 등은 축제의 제의성이 중심이 됨은 물론이다. 특히 무조신과 그의 대상신으로서의 검은 암소의 내력을 설명하는 <초공본풀이>가 소몰이와 입춘점의 제의성을 이해하는데 기여한다고 본다. <초공본풀이>의 아기씨의 서사에 따르면 소몰이에서 목우가 희생제의를 대상임이 분명해진다. 또한 제의성이 강조되는 절차인 소몰이와 입춘점에서 가면극의 연행으로 연결되는 축제의 확장에 대해서도 풍농의 기원, 무력의 등장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입춘굿놀이>의 가면극은 서사상 세 장면으로 나뉘는데 이 가운데 첫 장면은 새, 씨앗, 농부의 관계로 설명되는 벽사진경 의식의 연극화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농부는 나례의 벽사가면인 붉은 대면을 착용하고 있어 벽사의식을 담

당하는 무격의 존재임을 확인할 수 있다. 벽사진경의 제의를 연극화하여 보이는 것은 두 번째 장면에서도 이어지는데, 역시 나례와 지신밟기에서 벽사의 기능을 하는 포수가 등장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반면 세 번째 장면은 풍요 기원의 벽사와 무관한 시앗 싸움이 삽입되어 있다. 이는 앞선 두 장면이 제의성을 연극화하여 보이는 바와 달리, 유희성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입춘굿놀이>의 가면극은 제의성을 연극화 한 장면에서 유희성을 목적으로 한 장면으로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입춘굿놀이>는 제의성과 연극성을 주요 특성으로 하는 제의와 연극의 복합형 축제로 분류되었다. 이때 제의의 과정과 연극의 과정이 완전한 분리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어하는 원리로서 흥농을 피하고 풍농을 기원하는 입춘 축제의 목적이 작용하고 있다. 한편 가면극은 그러한 벽사진경의 제의를 극으로 장면화하여 보이는 특성에서 출발한다. 또한 그에 유희성이 강조되는 장면을 삽입하여 가면극의 확장을 이루고, 이후의 뒷놀이의 유희성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축제의 일반적 특성이 전통축제에서 어떠한 자질을 통해 구현되는가를 살피고, 그에 기반하여 전통축제의 유형을 분류하고자 한 본 연구가 이후 다양한 전통축제의 축제적 특성을 분석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명관, 「조선후기 체제의 반인 지배 체제와 반인의 대응」, 『한국문화연구』 15,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08.
- 김우주, 「초공본풀이 연구」, 한국교원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4.
- 김은희, 「제주도굿놀이의 특징 연구」, 『한국무속학』 14, 한국무속학회, 2001.
- 김택규, 『한국농경세시의 연구』, 영남대학교출판부, 1991.
- 김현선, 『양주소놀이굿』, 화산문화, 2001.
- 류정아, 『축제의 문화인류학』, 살림, 2003.
- 문무병, 『제주도 본향당 신앙과 본풀이』, 민속원, 2008.
- 배도식, 「무안 용호놀이 연구」, 『한국민속학회』 16, 한국민속학회, 1983.
- 송기태, 「풍물굿 대포수의 양면성」, 『공연문화연구』 15, 한국공연문화학회, 2007.
- 송방송, 『한국음악용어론』 권4, 보고서, 1979.
- 윤동환, 「별신의 양상과 성격」, 『한국무속학』 10, 한국무속학회, 2005.
- 이균옥, 「동해안 지역 무극 연구」, 박이정, 1998.
- 이두현, 『한국연극사』, 학연사, 1985.
- _____, 『양주 경사굿 소놀이굿』, 열화당, 1989.
- 이상일, 『축제의 정신』,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98.
- 이수자, 「삼불제석의 신적 성격과 형성 배경 —무조신화 초공본풀이와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역사민속학』 4, 한국역사민속학회, 1994.
- 진경옥, 『함경도의 민속』, 고려대출판부, 1999.
- _____, 『한국의 전통연희』, 학고재, 2004.
- _____, 『한국의 가면극』, 열화당, 2007.
- 최상수, 『한국민속놀이의 연구』, 성문각, 1985.
- 최은정, 「18세기 현방의 상업활동과 운영」, 『이화사학연구』 23·24합호, 이화사학연구소, 1997.
- 한양명, 「원전과 변환」, 『한국민속학』 37, 한국민속학회, 2003.
- 한진오, 「제주도 입춘굿의 연행 원리 연구」, 제주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07.
- 현용준, 『제주도 무속 연구』, 집문당, 1986.
- _____, 「영감본풀이와 영감놀이」, 『백록어문』 5,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백록어문학회, 1988.
- 무라야마 지준 저, 박전열 역, 『조선의 향토오락』, 집문당, 1992.
- 국립민속박물관 편, 『한국세시풍속사전』, [http://folkency.nfm.go.kr/].
- 한국학중앙연구원 편,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encykorea.aks.ac.kr/].

Abstract

The type and characteristics of the traditional festival
masque is performed

- Focusing on the <Ipchun-got-noli>

Lee, Bo-ram (RIKS, Korea University)

This paper,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festival, by selecting traditional festival masks are used or the masque is performed, to classify the type. It is an attempt to derive the festival of Korean traditional festivals.

The basic qualities of religiousness is a faith in the festival wear a mask or performed the masque. When it is formatted ritualistic to become the festival of "ritualistic type". The basic qualities of the playful characteristic, some associated with the dance and music. Entraining magnificent structure are complete it will be "theater type" festival. It has been confirmed in the social integration of conspicuous consumption. Competitiveness is exposed to become the festival of "game type". This quality is also present festivals that are configured in the complex.

In this paper, by focusing on the festival and the coupling surface of the theater-type festivals and ritualistic type, to investigate the Jeju Island <Ipchun-got-noli>. Masque of <Ipchun-got-noli> is divided into three scenes, of which the first scene, new, seed, is the theater of the 'beoksa' consciousness that are described in the farmers of the relationship. Farmers to wear a red face going 'Narye', become Mugyoku in charge of 'beoksa'. This role leads to the second scene catcher. Meanwhile, the third scene is battle game property was emphasized. The purpose of the festival when the proposal of theater of a scene are deployed at the scene

for the purpose of game property is governed.

Key word: Traditional festivals, masques, a type of festival, <Ipchun-gut-noli>

이보람

소 속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전자우편 : buramy@korea.ac.kr

논문투고일 2015. 04. 30 / 심사완료일 2015. 06. 08 / 게재결정일 2015. 06. 10



к с і